

# 수능 시험의 이해와 활용

민 경 찬 | 연세대 교무처장

## I. 들어가는 말

새해 들어 대학들이 200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 가운데 기대와 불안으로 엉켜있던 2002학년도 새 대입 제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오는 5월 2002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을 시작으로 새 대입 제도의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아직도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전형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입 준비를 해야 할지 막연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시험이 지난 몇 년간 해마다 더 쉽게 출제되어오며 따라 학력 경시 풍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편 일부 대학들은 수능 고득점자가 많아져 변별력이 낮아지고 학생부, 논술, 추천서, 면접 등의 전형 자료들의 신뢰도 때문에 학생 선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논술 고사 이외의 지필 고사는 일체 불허하겠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더욱 난감해 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선발에 관한 대학 자율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2학년도 새 대입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여러 전형 자료들에 대한 관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해보며, 중등 교육 정상화와 새 대입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능 성적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 입학 전형 제도는 전형 자료를 만들어 내는 주체가 고등학교, 공공 기관, 대학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평가 과정에서 전형 자료에 대한 비중이 자주 옮겨 다니는 가운데, 해방 이후 10여 차례 변천 과정을 가지게 되었다.

1987년 교육심의위원회는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범교과서적인 “대학입학적성시험”으로 대체하고 학력고사의 주관식 문항들은 대학별고사로 발전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1993년 2월에는 “'94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시행 계획”이 발표되어, 1994학년도부터 대학교육적성시험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꾸고 필수에서 선택으로 응시 기회를 2회까지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1994학년도의 2회에 걸친 수능 시험의 시행은 “난이도 조정”의 실패로 인하여 1회만 시행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그런데 1996학년도에는 학업성취도 위주의 대학별고사에서 논술식의 사고력 측정을 위한 방식으로 대학별고사의 내용이 변화되었다. 여기서 대학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 동안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학생 선발의 객관적 자료로 제공되었고,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고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어오는데 긍정적으로 정착되어 왔다.

”

수학능력시험은 대학 교육을 받는데 기초가 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학업 능력 및 전공 계열에 필요한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언어와 수리·탐구 및 외국어(영어) 영역별로 고등학교의 여러 교과목의 공통적인 목표와 내용을 망라한 통합 교과적 소재를 가지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자료의 해석, 원리의 응용,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판단 등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을 사고력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과 성격을 지니고 실시하여 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동안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학생 선발의 객관적 자료로 제공되었고,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고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점진적인 개선을 이루어오는데 긍정적으로 정착되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1997년 수능 시험부터는 변별력보다는 고교 교육 목표에 따른 난이도 조절을 통하여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특차 전형에서 고교 내신 성적, 수능 성적 위주로 평가되고, 일반 전형에서 대학별 고사의 반영 비율이 30% 이내에서 시행되고, 내신 성적은 종합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로 바뀌어오면서 그 반영 비중이 약화되어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의 비중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또

한 수능 시험은 통합 교과서적 소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학습 준비가 부족한 공교육은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었음에 수능 시험 준비는 사교육이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졌다. 한편 대학들은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대학이 물리적으로 학생부를 원활히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입시 기관과 언론의 영향 그리고 수능 성적이 고등학교에서 손쉬운 입학 지도를 위한 지표로 활용되면서 수능 위주의 선발이 확대되어 고교 교육의 파행화,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 및 대학 서열화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 개혁에 큰 걸림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교육부는 1998학년도 수능 시험부터 학교 교육의 경험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도록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시험의 성격을 '발전된 학력 고사' 형태로 변화시키고 영역별로 상위 50% 집단이 평균 75점이 되도록 난이도를 조절하고,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와 기타 전형 요소들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제 6차 교육 과정을 반영하여 과학탐구와 사회탐구에 선택 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서로 다른 시험에서 얻어진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어렵게 출제된 선택 과

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일정한 준거점에 비추어 의미있게 해석하고, 서로 다른 시험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택 과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점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성적을 영역별 원점수, 백분위와 더불어 표준점수로 표시하고 있다. 200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외국어 교육의 정상화와 세계화 추세 그리고 대학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수능 시험에 제2 외국어 영역이 추가되고 대학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01학년도의 '쉬운' 수능은 만점 받은 지원자도 탈락할 정도로 고득점자가 많아져 변별력을 상실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 수능에 대한 기본 철학과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선택 과목이

개설되는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인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 대입 전형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체제의 수능 시험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Ⅲ. 2002 대입 제도와 수능

1998년 10월에 발표된 당시 교육부의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선안'은 우수 학생의 개념을 시험성적 우수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특기, 품성, 장인정신, 개성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하고,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대학 입시 위주의 초·중등 학교의 왜곡된 교육과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을 다양화와 특성화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제도가 나오게 된 다른 배경은 1991년 4월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학생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 그리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 보장이라는 3가지 기능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학 입학 전형 제도가 도입되어, 1994년부터 대입전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율적인 선발 방법 등 세 가지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에 수능 시험과 본고사에 의한 단순한 점수 위주의 입시 제도를 탈피하여 선발 대상과 평가 도구의 다양화, 과목별 가중치, 추천제, 가정 환경 및 특성 배려 등 다양한 입학 전형 방법이 소개되는 등, 입학에 관한 대학의 자율권을 위한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연세대학교는 1994년 3월에 발표한 '입학 제도 개혁안'에서 본고사 폐지, 특별 전형 제도 도입, 추천 입학, 내신 비중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후로 대학들의 입학 제도가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되기 시작하여 많은 대학들이 여러 형태의 특별 전형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입 전형의 다양화, 특성화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2002 대입 제도 개선안은 '획기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2002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안'의 특징은 첫째, 특별 전형의 확대이며, 둘째, '평가'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고, 셋째, 전형 일정의 자율화라고 볼 수 있다. 이 개선안의 '평가'에 관한 특징은 첫째, 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함에 시험 성적이나 교과 성적 점수 위주와 함께 특별 활동, 봉사 등 비교과 활동, 특기, 품성, 소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일정한 범위 내의 학생들은 동등한 잠재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격기준', '등급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에서도 소수점 및 총점을 폐지하

고 등급제를 제시하여 점수 석차화의 역제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그 동안의 공정성·객관성 일변도의 가치에서 탈피하여 합리성·타당성·합목적성에 의한 학생 선발로 평가의 개념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넷째, 학생 선발시 개인의 성취 내용과 더불어 교육받은 환경이 평가 요소로 도입되어 출신 교고의 특성과 교육 활동의 특징을 내부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평가=점수'라는 도식에만 머물러 형식적 기회 균등과 객관적 기준이라는 사고의 틀에 갇혀 있으면서, 본래의 교육 목표보다는 변별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왔던 그동안 경직된 점수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2학년도 대입 개선안'에서는 수능 시험 점수를 등급제 또는 자격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점수를 사용하더라도 그 입학 여부의 결정 과정에 영향력이 낮아지는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에서 주관식 출제를 확대하고, 사고력 위주의 쉬운 출제 방향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변별력 제고라는 이유로 도입된 소수점 배점은 석차화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폐지하고 정수 단위의 점수를 제공한다. 총점 위주로 석차화되지 않도록 총점을 폐지하고, 영역별 표준 점수를 표시하여 모집 단위에 따른 영역별 반영을 유도하고 있다. 영역별 성적에 관한 원점수,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와 함께 등급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9등급으로 한 표준점수인 Stanine 방식에 의한 5개 영역 종합 등급과 영역별 등급을 병행하여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력자원은 대학들이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수립시 수능 성적위주로 점수화·석차화되지 않도록 총점 활용을 자체해 줄 것과 가급적 수능 등급 또는 영역별 성적을 활용하여 최소 자격 기준을 설정하거나, 모집

“

'2002학년도 대입 개선안'에서는 수능 시험 점수를 등급제 또는 자격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점수를 사용하더라도 그 입학 여부의 결정 과정에 영향력이 낮아지는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

단위에 부합하도록 영역별로 반영하는 등 대학별로 독자적인 기준과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전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IV. 문제점들의 이해와 보완 방안

2002학년도 새 대입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 7년간 수능 시험의 성격과 난이도가 변화해 오는데 지적이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완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변별력

그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 했으나, 문제가 평이해짐에 따라 과외 공부 인구가 더 많아지고 변별력도 크게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1학년도 수능 시험의 결과가 나오자 '수능 없는 대학 입시', '수능 시험 퇴출' 등의 표현으로 수능 시험이 대입 전형 자료로서 가치가 거의 상실된 것이 아니나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변별력의 문제는 상위권 몇% 안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하여 더욱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수능의 어떤 영역에서는 한 문제만 틀리면 전국 순위 2%를 벗어나게 되었다고도 한다. 수능 시험의 변별력 상실은 학생부 성적 부풀리기와 맞물려 대학의 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자

료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또한, 학교 시험의 변별력마저 사라지게 하여 학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여 교실 붕괴 현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능 평가는 변별력보다는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점이나 동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학습 목표의 조정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평소에 학업에 부족했던 학생이 운으로 점수를 잘 받거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보다는 실수 안 하기 시험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수능 시험에서 점수대별로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능 시험은 상위권 대학 위주의 시험이 아닌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학생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범위 내의 학생들은 동등한 잠재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문항당 평균 1.82점으로 220문항의 시험에서 한두 문제의 득점 차이를 그 학생들 사이의 절대 능력 차이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년에 한번, 하루의 시험인 수능 시험에서 일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변별력을 찾기보다는 학생부, 논술, 면접 등 다른 전형 자료를 활용하면서 인성·품성·과외 및 봉사 활동 등 개인의 특성·소양과 함께 종합적으로 변

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생부, 추천서 등 전형 자료들의 신뢰도 문제는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반영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보다 긍정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또한 수능 성적은 한 가지의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선발 목적에 따라 자격 기준, 영역별 점수, 가중치, 총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2002학년도 새 대입 제도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 2. 문항의 질적 수준 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각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편이었다. 시험 문제들이 종래의 것들과는 구별되게 참신했으며, 그 시험이 학생들의 적용력·종합력·사고력 등 고등 정신 능력을 평가하기에 손색이 없는 좋은 문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통합 교과적 문제를 출제한다는 원칙 하에 일부 문항들은 그 소재와 내용에 있어서 무리하게 출제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일선교사들은 시험 내용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해가 거듭되면서 종전의 학력고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문항의 질적 수준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비판은 특히 사회탐구영역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학교 교육에서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는 취지에 따라 쉬워진 수능은 "중학생의 실력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보인다"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수능이 '쉬워진'다는 표현보다는 수능 시험의 목표에 따른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단순히 수능 시험을

쉽게 하여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수능이 쉬워짐으로서 더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통해 점수를 올려보겠다고 몰려들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조차 더 인기 있는 대학을 위해 도전해보겠다고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수능시험의 문항에 대한 난이도 문제는 통합 교과적인 특성과 사고력 측정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재정비되어 수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3. 수능 시험의 성격 및 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영어) 영역별로 통합 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사고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점차 종전의 학력고사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면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대학 수학 능력과 고교 교과목 학업성취도의 측정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띄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 교과적 특성 및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과 함께 제 6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능 시험의 내용과 체제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심화 선택 과목을 구별하는 교육과정 체제의 변화에 따른 수능 시험의 선택과목의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005학년도를 위한 수능의 성격과 체제의 개선이라는 장기적 발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대체적으로 수능 시험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수능Ⅰ은 일반 학업 적성검사, 수능Ⅱ는 교과목 학력검사로 실시하지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

“

그 동안 수능 시험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시험으로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해 왔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대입 자격 시험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시험이다. 이제 시작 단계인 대학들의 다양한 전형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수능 체제를 유지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본다.

”

다.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능 시험은 그 성격의 변화에 앞서 다각적인 사전 검토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수능 시험 본연의 성격이 유지되기 어려웠던 요인들 중 통합 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적성검사를 출제함에 있어 출제 방식, 출제 기법 등 출제 여건의 한계와 고교 현장에서의 '수능을 위한' 수업의 수능 I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수능 II의 성격을 학력검사로 결정함에 있어 과거에 예비고사 - 학력고사 - 수능 시험으로 변천해 온 과정에 대한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02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전형이 더욱 다양화, 특성화되어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들이 이 새로운 제도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텐데, 벌써부터 수능시험의 변화를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또다른 혼란과 혼선을 크게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 동안 수능 시험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시험으로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해 왔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대입 자격 시험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시험이다. 또한, 이제 겨우 대학들이 학생부, 수능, 논술, 면접, 봉사활동, 인성·적성, 재능 및 소양 등 여러 가지 전형요소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하여 그 동안 사회적인 문제였던 수능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고

고 교육 정상화를 기대하며 대학 특성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수능 시험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수능 시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 활용 비중이 증대되면 또다시 수능 위주의 선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시작 단계인 대학들의 다양한 전형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수능 체제를 유지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본다.

#### 4. 문제 출제 방식의 개선

현재 수능 시험의 문제는 특정 장소에 연금된 상태에서 각 영역별로 소수의 출제 위원들에 의하여 제작되고 있다. 출제 기간은 약 1개월이지만 일정 상 실제로 문항 출제에 할애되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적어 10일 내외로 모든 출제 작업을 끝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극소수 인원이 시험 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양질의 검사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출제에 필요한 시간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짧은 일정 안에 구성된 위원들에 의해 출제하는 체제는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수능 시험의 취지에 적합한 양질의 문항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 검토해 봐야 할

“

대학들도 변별력을 위해 고등학교나 정부에 완벽한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인 평가 도구 및  
선발 방법들을 연구 개발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화된 입학 전형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것이다. 미국의 SAT나 ACT 검사에서는 어느 한 문항이 최종적인 검사 문항으로 채택되어 실제로 사용되기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하여 적어도 10여 차례의 검토 과정을 거친다. 우리도 출제된 문제를 실제 시험에 사용하기 전에 문항 내용의 정확성, 문항의 공정성, 양식의 적절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한 문제 은행식 관리 운영 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5. 시험 시기

현재 수능 시험 성적 발표는 고3 교육과정이 다 마친 후에야 발표되어 12월 중순이 되어야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일반 모집이 가능하다. 2002 대입 전형부터는 특차 모집이 없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다소 여유가 생겼지만, 아직도 대학들이 전형 방법을 다양화하고 싶어도 일정이 촉박하여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자 모두가 논술 및 면접, 구술고사를 치러야 되고 학생부도 원활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 등 수험생과 대학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물론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을 전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점차적으로 수능 시험 시기를 앞당기고 있으나

고등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수시 모집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기는 쉬울 것 같지 않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고교 2학년까지의 교과 과정으로도 대학 수학 능력을 인정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우리 수능 시험의 시기가 훨씬 앞당겨져도 교육과정상 무리가 없다고 보며, 이는 각 대학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을 활용하는 다단계 전형 등 다양한 선발 취지에 따라 적합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선발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며, 수험생과 고등학교의 불필요한 입시 부담 감소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고교 교육 현장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이므로 단계적으로 수능 시험 일정을 앞당겨나가야 할 것이다.

## V. 맺는 말

지금까지 대입 제도에 대한 논란에서 대부분 새로운 대안들은 결국 문제의 모양만 바꾸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늘 같은 어려움에 맴돌아 왔다고 본다. 그러므로 2002 새 제도의 시행에 앞서 수능에 대한 모든 논의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와 개선의 과정은 우선적으로 교



육적인 판단이 올바로 서야 하고, 또한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어떤 변화가 새롭게 도입되면 사교육이 공교육에 훨씬 앞서서 적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교육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는 일종의 공식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앞에서 제기된 수능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도 수능의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대입 제도의 전체적인 방향을 올바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풀어 가야 할 것이다. 변별력의 문제도 수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능 성적을 학생부, 논술, 면접, 자기 소개서, 추천서 등 다른 전형 자료들과 함께 종합적인 관점에서 활용하고, 자격 기준, 영역별 점수, 영역별 가중치 부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활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들도 변별력을 위해 고등학교나 정부에 완벽한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인 평가 도구 및 선발 방법들을 연구 개발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화된 입학 전형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관한 자율권 확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수능 시험에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도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아래 인내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

에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안고 온 왜곡된 전형 자료, 서열화된 대학 구조 등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어떤 제도에 의해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방향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2002학년도 새 대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 단계씩 개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와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다. **박**

####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Carleton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입학관리처장, 대학수학회 이사, 한국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교무처장, 국제 퍼지시스템학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Fuzzy logic and its Applications to Engineering, Information Sciences and intelligent Systems』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Newton's methods and Frobenius - Dieudonn theorem in nonnormable spaces", "Fibrewise exponential laws in a quasitopos"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